

한국SGI 회원의 종교적 가치관과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諸点淑**

- | | |
|-----------------------------|-------------------------|
| I. 머리말 | IV. 한국SGI 회원의 생활 만족도 현황 |
| II. 한국SGI 설문조사 대상 개요 | V. 맺음말 |
| III. 한국SGI 회원의 종교적 가치관과 신앙심 | |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SGI 회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SGI 회원의 종교적 가치관과 생활 만족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계 종교인 한국SGI의 종교적 특징과 한국 사회 속에서의 한국SGI 종교의 성장 요인에 접근하고자 했다. 이 조사에서 살펴본 결과, 한국SGI 회원의 종교를 갖는 시기는 기성종교와 비교했을 때 9세 이하와 20대~30대가 가장 많았다. 또한 한국SGI의 회원은 기성종교 대비 신앙을 하는 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믿게 된 계기는 스스로 필요해서와 다른 사람의 권유가 많았고, 종교를 믿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 삶의 의미를 찾기위해라는 특징을 보였다. 종교집회 참가 횟수, 개인적인 기도 또는 기원 횟수, 교리를 접하는 횟수도 기성종교에 비해 훨씬 많았다. 또한, 종교적 신앙심 정도나 종교의 힘으로 병을 나은 경험 역시 기성종교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생활 만족도 면에 있어서는 행복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인생의 의미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삶의 중요한 척도에서는 기성종교가 건강한 것을 꼽을 때 한국SGI는 가정생활이 즐거운 것을 꼽았다. 또한, 한국

* 이 논문은 2021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Frontier Project”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동서대학교 캠퍼스아시아학과 부교수

Sgi 회원들은 기성종교에 비해 유교적 가치관에 얽매이는 보수적인 가치관이 아닌 개방적 가치관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한국Sgi 회원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와는 다른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Sgi라는 종교와 삶이 매우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Sgi 회원의 종교적 가치관과 생활 만족도 특징 역시 한국 사회 속 한국Sgi 성장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한국Sgi, 창가학회, 종교적 가치관, 생활 만족도, 기성종교, 한국갤럽, 일본계 신종교

I. 머리말

한국SGI는 일본의 창가학회(創價學會)를 기반으로 유입된 일본계 종교로, 국내에서는 1961년 8월에 열린 좌담회¹⁾를 그 시작으로 한국 사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일본 창가학회의 글로벌 면모를 상징하는 국제창가학회(SGI:Soka Gakkai International)가 1975년 1월에 결성되면서 한국SGI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인 행보를 나타냈다.²⁾ 현재 공칭 150만 회원³⁾을 자랑하는 한국 기성종교에 버금가는 거대 규모로 성장한 한국SGI는 전국 129곳의 문화회관을 설립하여 종교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⁴⁾

그렇다면, 한국SGI는 어떻게 한국에서 많은 회원을 보유하면서 거대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종교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왔고, 관련 연구와 함께 현지 조사도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현지 조사는 이원범, 남춘모를 중심으로 한 한국연구재단 수행과제 결과가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일본계 종교를 본격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일본계 거대 종교부터 군소 종교까지 총체적으로 밀도 있게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른바 국내 유일 일본계 종교를 집중 분석한 대표적 연구라 할 수 있다.⁵⁾

- 1) 한국SGI의 가장 주요한 공식의례로, 좌담회는 홀수 달의 '지구 좌담회'와 짝수 달의 '반 좌담회'로 달마다 교차하여 진행된다. 좌담회는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이 끝나는 주에 시작되며, 주로 이 모임을 통해 회원들은 체험담을 발표하고 화합을 도모한다. 최지원, 「신종교의 언어적 실천과 종교성-한국 SGI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20년 [부록A] 자료에서 참고하였다. 122~127면.
- 2) 한국SGI공식 홈페이지 <https://www.ksgi.or.kr/cgi/koreasgi/koreasgi02.ksgi> 2022년 10월 10일 열람.
- 3) 한국SGI에서는 개신교의 신자, 불교의 불자와 같은 개념으로 회원이라 일컫고 있다.
- 4) 문화회관의 수는 한국SGI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주요활동은 평화, 문화, 교육, 사회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평화활동처럼 일본 창가학회와 연계로 이루어지는 활동도 있지만 한국 사회의 상황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https://www.ksgi.or.kr/helpdesk/findCenter.ksgi> 2022.10.10. 열람.
- 5) 이원범이 책임연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공동조사팀으로 구성하여 2003년 9월부터 2년간 진행한 '한국내 일본계 종교활동에 대한 조사'이다. 결과물로는 이원범, 남춘모, 『한국속 일본계 종교의 현황』, 대왕사, 2008, 이원범 편저, 『한국내 일본계 종교운동의 이해』, 제이앤씨, 2007이 있다. 이 조사 역시 한국갤럽과 비교 조사한 것으로 향후 이번 연구와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그 외 한국SGI에 대해서는 교리적 특징이나 정체성, 교리의 실천과 관련된 연구가 김용환에 의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⁶⁾ 또한 최근 최지원처럼 한국SGI의 종교활동에서 수집된 언어 자료를 기반으로 일상언어와 종교성의 관계를 고찰한 독창적 연구도 등장하였다.⁷⁾ 유광석은 한국SGI의 평화주의에 대해서 국제창가학회(SGI)와 어떤 차이점을 볼 수 있는지 비교 고찰하기도 했다.⁸⁾ 이러한 연구들 역시 궁극적으로는 한국SGI 한국 사회 성장 요인을 파악한 연구라 할 수 있다.

한국SGI의 성장 요인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이원범, 남춘모의 연구에서는 한국SGI의 성장요인으로 ‘좌담회의 성격’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현지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분석하고 있다.⁹⁾ 또한, 한국SGI의 조직의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도 내놓을 수 있는데, 이토 타카오는 한국SGI의 조직과 운영방식의 특징에 본부, 지역별, 속성별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한국SGI가 그동안 활력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그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 목표, 즉 ‘인간혁명’에 있음을 언급한다.¹⁰⁾ 마지막으로 김현석은 문화회관 증가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SGI의 성장 요인을 치밀하게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한국SGI의 새로운 특징을 도출하고 있다.¹¹⁾

한편, 좌담회를 한국SGI의 성장 요인으로 고찰한 이원범, 남춘모의 연구를 제외한 그 외 연구의 공통점은 한국SGI 교단의 입장에서 성장 요인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
- 6) 김용환, 「한국SGI의 공공윤리 교육연구」, 『종교교육학연구』 53, 한국종교교육학회, 2017, 55~76면.
 _____, 「한국SGI의 공공행복 연구」, 『종교연구』 77, 한국종교학회, 2017, 249~275면.
 _____, 「한국SGI 육군청정 법화삼매 연구」,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6,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 2020, 45~62면.
 _____, 「한국SGI 지용보살의 공공행복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91,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22, 459~492면.
- 7) 최지원, 앞의 논문.
- 8) 유광석, 「한국창가학회(KSGI)와 국제창가학회(SGI)의 평화주의에 대한 비교 연구」, 『신종교연구』 46, 한국신종교학회, 2022, 183~211면.
- 9) 이원범·남춘모, 「조직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일본계 신종교 교단의 소집단 활동-소집단활동으로서 KSGI좌담회 분석」, 『일본근대학연구』 16, 한국일본근대학회, 2007, 155~172면.
- 10) 이토 타카오, 「한국SGI 조직의 과거, 현재, 미래-인간혁명의 종교, 광선유포(廣宣流布)를 위한 조직」, 『신종교연구』 41, 한국신종교학회, 2019, 41~68면.
- 11) 김현석, 「한국SGI 종교조직과 활동에 관한사회학적 연구-조직화 과정과 문화회관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서대 박사학위논문, 2022.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성장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관점에서 한국SGI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한국SGI라는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한국SGI의 한국 사회의 성장 요인은 물론 회원 개인의 변화를 파악하고, 나아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근본적 배경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일본계 신종교인 한국SGI 회원들의 종교적 가치관 및 생활 만족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껀럽에서 실시한 종교 현황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기성종교와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을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SGI 회원의 종교관과 그들의 신앙심, 그 종교가 일상생활 속으로 어떻게 접목되어 가는지, 나아가 지역사회, 사회로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한국SGI 설문조사 개요에 대해 언급하고, 회원들의 종교에 대한 생각과 그들의 신앙심을 껀럽에서 조사한 기성종교와 대비하여 살펴본다. 이어서 이들의 이러한 가치관이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접목되어 삶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 역시 기성종교와 대비하여 살펴볼 것이다. 설문조사의 뒷받침을 해주는 추가자료로 회원들의 인터뷰 내용도 참고하고자 한다.

II. 한국SGI 설문조사 대상 개요

이 글에서 소개하는 설문조사는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조사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에 걸쳐 총 10개의 지역(껀)의 문화회관을 방문하여 1,4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¹²⁾ 이 중 모든 질문에 모두 응답한 설문지 수는 803부이고, 응답이 미흡한 설문지가 626부이다.¹³⁾ 하지만, 1개(또는 2개)의 항목을

12) 이 조사는 2016~2019년에 걸쳐 실시한 연구프로젝트로 5명의 공동연구원이 참여하였다. 필자도 공동연구으로 한국SGI 현지 조사에 대부분 참여하였다. 참고로 이 글의 설문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는 연구보조원 김현석의 도움을 받았다.

13) 한국SGI회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대체로 높은 연령의 대상자는 설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 경우는 연구원, 연구보조원이 옆에서 읽으면서 체크를 대신하기도 하였다. 설문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239부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대략 1,050부 정도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설문 상황으로 질문에 따라 응답한 총 부수는 다르게 나타난다. 1,429부에 해당되는 지역별 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참고로 지역별 조직구조는 방면, 권, 지역, 지부, 지구, 반으로 이루어져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¹⁴⁾ 이번 조사는 권별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다.

<표 1> 설문조사 권별 현황

일시	장소(권)	설문실시부수(장)
17.08.19(토)	마포권	101
17.08.20(일)	일산권	154
17.08.23(수)	동래권	138
17.08.26(토)	안산권	133
17.08.27(일)	관악권	175
17.09.21(목)	사상권	184
18.04.14(토)	남대구권	60
18.04.22(일)	서광주권	166
18.06.19(화)	사하권	141
18.06.20(수)	서면권	177
총 10권 실시		1429

조사 방법은 한국SGI 본부에 조사를 위한 사전 협조를 구하고, 실제 종교행사(회합)가 있을 때 종교행사 참석 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목표와 개요를 설명하고

항목이 많았던 것도 모든 문항을 완료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향후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및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겠다.

- 14) 한국SGI 조직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상임중앙회의이다. 이사장과 부이사장, 부인부장, 청년부장, 남여자부장 등 각 부서 대표자들이 월 1회 모여 조직운영방침을 결정하며 이를 각 방면과 권에 전달한다. 조직의 기본 단위는 반(班)이다. 3~5개의 반이 모여 1개 지구(地區)를 형성한다. 3~5개의 지구가 모여 1개 지부(支部)를 만든다. 지부는 대개 면, 동 단위로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지부가 3~5개 모여 지역(地域)을 이루며 지역이 3~5개 모인 것이 권(圈)이 된다. 3~5개의 권이 모이면 1개 방면(方面)을 이룬다. 현재 144개권, 49개의 방면이 있다. 한국SGI공식홈페이지 <https://www.ksgi.or.kr/sgi/koreasgi/koreasgi05.ksgi> 2022.10.10. 열람.

설문조사 후 수거하는 형태를 취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본부와 상의를 거쳐 가능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자 했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 경기도, 부산, 전라도, 경상남북도의 권역 회원을 대상으로 하였다.¹⁵⁾

한편,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조사한 한국 갤럽에서는 1984년부터 한국인의 종교 현황에 대해 조사를 5차례(1997년, 2004년, 2014년) 걸쳐 실시하여 2015년 『한국인의 종교』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한국SGI 회원의 설문조사는 2014년도의 한국갤럽 설문조사와 비교 분석한 자료이다.¹⁶⁾ 한국갤럽의 조사 대상은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포함한 1,500여명으로 이중 불교인 334명, 개신교인 318명, 천주교인 98명, 기타종교인 4명으로 확인되고, 그 외는 750명이 비종교인이다.¹⁷⁾ 이글에서는 기성종교와 한국SGI의 비교라는 점에서 기타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종교 현황은 제외하였다.¹⁸⁾ 이하에서는 이글의 비교 대상인 한국SGI와 한국 갤럽의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한다. 먼저 성비와 결혼 유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표에 제시한 바와 같다.

-
- 15) 표본 오차는 모집단의 크기가 문항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글에서 언급한 문항을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pm 5.0\%$ (95% 신뢰수준)이다. 표본은 비비율적 표본으로 행사(회합)에 참석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술적 통계만 제시하였다.
- 16) 최근 한국 갤럽에서는 2021년에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현황 조사 결과를 2022년에 공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SGI설문조사 실시 시점에 이미 나온 한국갤럽 조사 결과(2014년)를 바탕으로 출간된 책을 바탕으로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 17) 이들 종교를 한국SGI와 비교 대상으로 한 이유는 설문 항목 중 '종교 집회 참여 횟수'의 결과로 보건대, 기독교, 천주교가 일주일에 1~2회 참석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신앙심이 있는 종교인이라 판단되었다. 따라서 교회와 유사한 시설인 한국SGI 회원 집합 시설에서 이루어진 조사 결과와도 충분히 비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한국갤럽의 불교조사 결과는 1년에 1~2번으로 불교 특징상 일반적 종교집회 데이터로 볼 수 있다.
- 18) 상세한 설문조사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조사대상:전국(제주도 제외) 만 19세이상 남녀 1,500명, (2)조사시간: 2014년 4월 17일~5월 2일, (3)표본오차: $\pm 2.5\%$ (95%신뢰수준), (4)표본추출 방법: 2단 층화 집락 추출, (5)자료수집방법: 전문조사원 개별 인터뷰.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2015, 12면.

〈표 2〉 성비

구분	성별		총계
	남자	여자	
한국갤럽	325	429	754
	43.1%	56.9%	100.0%
한국SGI	298	755	1,053
	28.3%	71.7%	100.0%

〈표 3〉 결혼상태

구분	결혼상태		총계
	미혼	기혼(사별/별거)	
한국갤럽	115	639	754
	15.3%	84.7%	100.0%
한국SGI	204	836	1,040
	17.8%	82.2%	100.0%

한국갤럽 조사에서 성비는 여자가 56.9%, 남자는 43.1%으로 전체 7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국SGI에서는 여자가 71.7%, 남자가 28.3%으로 약 1,053명 정도를 그 대상으로 했다. 결혼 유무는 한국갤럽조사가 미혼이 15.3%, 기혼이 84.7%, 한국SGI는 미혼이 17.8%, 기혼이 82.2%이다. 한국SGI가 한국갤럽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비율이 14.8% 많고, 남성이 14.8% 적지만, 결혼 유무에 있어서는 대부분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한국갤럽과 한국SGI 조사 대상의 연령과 학령과 관련된 내용이다.

〈표 4〉 연령

구분	연령					총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갤럽	82	109	165	178	220	754
	10.9%	14.5%	21.9%	23.6%	29.2%	100.0%
한국SGI	125	130	229	296	274	1054
	11.9%	12.3%	21.7%	28.1%	26.0%	100.0%

〈표 4〉 학령

구분	학력			총계
	중졸 이하	고졸	대학재학 이상	
갤럽	162	336	256	754
	21.5%	44.5%	34.0%	100.0%
한국SGI	183	415	427	1,025
	17.9%	40.5%	41.7%	100.0%

연령은 한국갤럽 조사 대상은 60대 이상이 29.2%를 차지하고, 50대(23.6%), 40대(21.9%), 30대(14.5%), 20대(10.9%) 이하 순이다. 한국SGI는 50대가 28.1%로 가장 많은 연령대이고, 다음이 60대(26.0%), 40대(21.7%), 30대(12.3%), 20대(11.9%)이하 순이다. 한국SGI가 다소 젊은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을 살펴보면 한국갤럽이 고졸(44.5%), 대학재학 이상(34.0%), 중졸 이하(21.5%)의 순이고, 한국SGI가 대학재학 이상(41.7%), 고졸(40.5%), 중졸 이하(17.9%)의 순이다. 이 분포에서도 한국SGI 회원의 학력이 기성종교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갤럽과 한국SGI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정주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하지만, 한국갤럽의 조사 대상자가 가정주부, 화이트칼라, 블루칼라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는 반면, 한국SGI는 가정주부가 전체 40.6%라는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부인부의 역할이 두드러짐을 보여주는 구성비라 할 수 있다. 물론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가정주부의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다. 다음이 화이트칼라, 블루칼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직업군¹⁹⁾

직업군	한국갤럽		직업군	한국SGI	
농/임/어업	18	2.4%	농/임/어업	6	0.5%
자영업	108	14.3%	자영업	105	10.1%
블루칼라	181	24.1%	블루칼라	130	12.5%
화이트칼라	163	21.7%	화이트칼라	225	21.6%
가정주부	207	27.7%	가정주부	422	40.6%
학생	33	4.4%	학생	37	3.6%
무직/은퇴/기타	41	5.4%	무직/은퇴/기타	115	11.1%
	751	100%		1,0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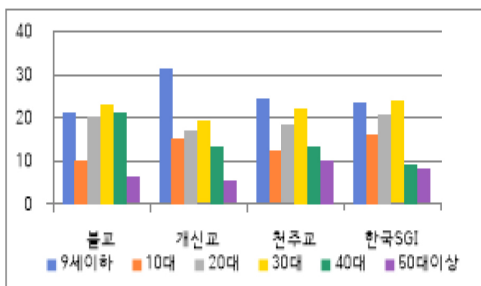
이상의 한국갤럽과 한국SGI의 설문 대상자들을 참고로 이하에서는 한국SGI 회원의 종교적 가치관에 대해 한국갤럽조사 결과와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로 한국SGI 회원 대상의 설문 문항은 크게 5개 항목²⁰⁾으로 구분하고 총

19)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앞의 책, 141면.

35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글에서는 모든 질문에 대해 지면상 다루지 못하고, 주제에 부합되는 질문만 발췌하여 그 내용을 살펴본다.

Ⅲ. 한국SGI 회원의 종교적 가치관과 신앙심

한국SGI 회원의 종교적 가치관과 신앙심을 살펴보기 위해 주목한 점은 입신한 시기와 계기, 종교활동의 내용 및 정도, 신앙심, 일반적 종교에 대한 가치관 등이다. 특히 기성종교인 기독교(개신교, 천주교), 불교와의 대비를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문항들을 꺾림의 문항과 동일 항목으로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신앙 시기와 관련하여 ‘귀하는 현재의 종교를 몇 살 때부터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7〉 신앙시기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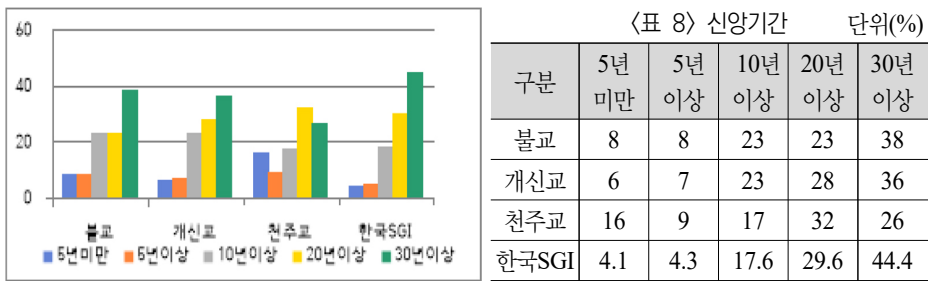
구분	9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불교	21	10	20	23	21	6
개신교	31	15	17	19	13	5
천주교	24	12	18	22	13	10
한국SGI	23.3	15.8	20.4	23.6	9.1	7.8

신앙을 시작한 나이가 9세 이하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는 종교는 개신교(31%)이다. 다음이 천주교, 한국SGI, 불교가 뒤를 잇고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다. 특히 개신교나 천주교는 모태신앙인 경우가 종교 특성상 많은 수를 나타내는 것 같다. 반면 한국SGI는 9세 이하의 비율 못지않게 20대, 30대에도 이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 20) 5개 문항은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Ⅱ. 다음은 현재 귀하의 개인 ‘종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Ⅲ. 다음은 귀하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종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Ⅳ. 다음은 귀하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Ⅴ. 다음은 한일관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이다.

다시 말해 모태신앙의 경우와 청장년기에 처음 한국SGI에 몸담은 회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불교는 10대와 50대를 제외하고 대체로 모두 2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불교의 현상은 정기적 모임을 주로 하는 개신교, 천주교와는 다른 종교적 측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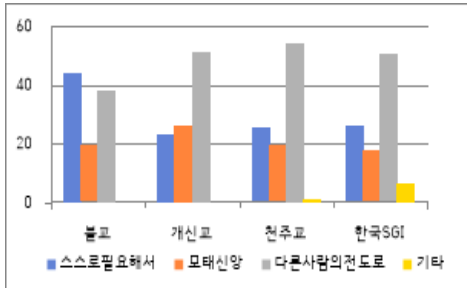
그렇다면 신앙을 한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 이를 나타낸 것이 다음의 ‘현재의 종교를 믿으신 기간은 지금까지 대략 몇 년 정도 됐습니까?’라는 질문에 관한 결과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SGI는 30년 이상 회원이 44.4%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20년 이상이 29.6%로 10년 이상, 5년 이상으로 갈수록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기성종교와 대비 했을 경우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른바, 한국SGI의 회원은 기성종교 대비 신앙을 하는 기간이 긴 것으로, 기성종교에 비해 이탈의 우려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 역시 한국SGI의 국내 성장 요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이렇게 장기간 한국SGI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하여 이토 타카오가 지적하고 있는 조직 운영의 특징은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른바, 한국SGI만의 특징인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라는 ‘스승’을 비롯하여 다양한 ‘본보기’의 존재, 좌담회와 화합 등을 통한 치밀한 ‘격려 시스템’의 존재, 다양한 활약의 기회의 제공, 세밀하고 구체적인 목표 제시와 합리적 관리 시스템, 사회생활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교육 내용 등이다.²¹⁾ 이러한 조직적 시스템이야말로 한국SGI 회원들을 오랫동안 종교에 머물러 있게 하는 한국SGI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종교를 믿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다.

21) 이토 타카오, 앞의 논문, 4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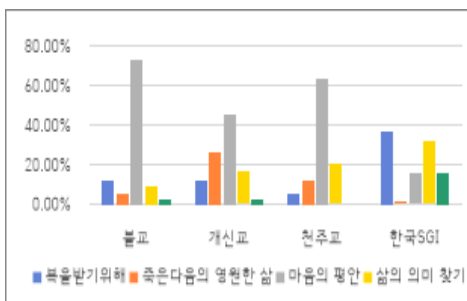


〈표 9〉 신앙계기 단위(%)

구분	스스로 필요해서	모태 신앙	다른 사람의 전도로	기타
불교	44	19	38	0
개신교	23	26	51	0
천주교	25	19	54	1
한국SGI	25.6	17.2	50	6.3

불교를 제외한 개신교, 천주교, 한국SGI는 다른 사람의 전도로 신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50% 이상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SGI는 스스로 필요해서가 25.6%, 모태신앙은 가장 낮은 수치인 17.2%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한국SGI는 기타의 내용이 6.3%에 해당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한국SGI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른바 이케다 선생님의 말씀, 친구의 권유, 소원성취(진로), 경제적 이유, 건강, 시부모님의 권유, 생활고, 사업 실패 극복, 긍정적 삶의 변화, 종교 공부, 부모님 권유 등이다. 여기서 가장 많은 것은 병 치유다.

그렇다면, 종교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종교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그래프와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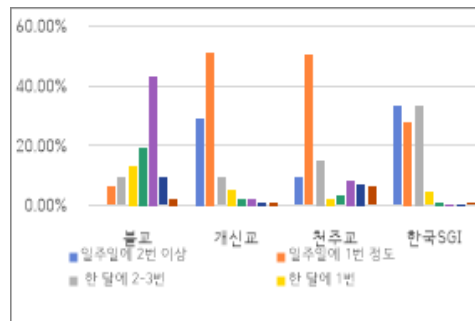
〈표 10〉 신앙 이유 단위(%)

	복을 받기 위해	죽은 다음의 영원한 삶	마음의 평안	삶의 의미를 찾기	기타
불교	12	5	73	9	2
개신교	12	26	45	16	2
천주교	5	12	63	20	0
한국SGI	36.8	0.9	15.2	31.3	15.8

한국SGI 회원은 복을 받기 위해(36.8%),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31.3%)서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죽은 다음의 영원한 삶을 위해(0.9%),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15.2%)서라는 항목에서는 기성종교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 또한 기타가

15.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나, 가족, 타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라는 것이 압도적이고 그 외, 자기변화, 건강, SGI의 종교적 색채가 반영된 인간혁명, 속명 전환, 세계평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회원들의 자신이 이루고자 목표 내지는 기원이 가족, 타인 또는 사회공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내면적 개선과 변화가 가족, 타인과 사회, 세계의 긍정적 요인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편, 기성종교의 추구하는 사후 세계에 대한 바람은 현저히 낮다.

정기적 종교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다음의 ‘종교집회에 얼마나 자주 참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표 11〉 종교 집회 참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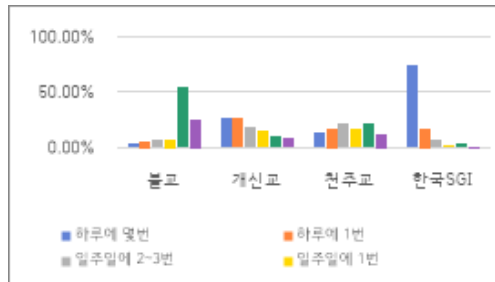
단위(%)

	일주일에 2번 이상	일주일에 1번 정도	한 달에 2-3번	한 달에 1번	두세 달에 1번	일 년에 1-2번	몇 년에 1번 또는 그 이하	전혀 가지 않는다.
불교	0	6	9	13	19	43	9	2
개신교	29	51	9	5	2	2	1	1
천주교	9	50	15	2	3	8	7	6
한국SGI	33	27.8	33.4	4.2	0.8	0.2	0.1	0.6

물론, 위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신교, 천주교는 교회 예배, 성당의 미사 참가가 있기에 일주일에 한 번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반면 한국SGI의 경우는 그 빈도수가 일주일에 2번 내지는 한번, 한 달에 2~3번이 가장 많다. 한국SGI의 종교행사는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좌담회를 중심으로,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부별 교학 연찬회와 기타 행사(월별 행사, 역할 또는 직책별 모임)가 있다. 좌담회는 한국SGI 전체 종교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의례로, 비정기적인 교학 연찬회 및 기타 행사와 달리 4부(장년부, 부인부, 남자부, 여자부)의 회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행사이다.²²⁾ 한국SGI 행사가 한 달에 2~3번이 가장 많은 것은 이러한 모임의 특징 때문이다. 그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역 활동 등 여러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적어도 한 달에 여러 번 이들은 전체 또는 지역별로 만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역시 한국SGI 본부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역시 기성종교와는 차별화된 한국SGI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자료와 같이 종교적 행위와 관련된 질문인 ‘개인적으로 기도·기원 등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SGI의 경우 하루에 몇 번이라는 항목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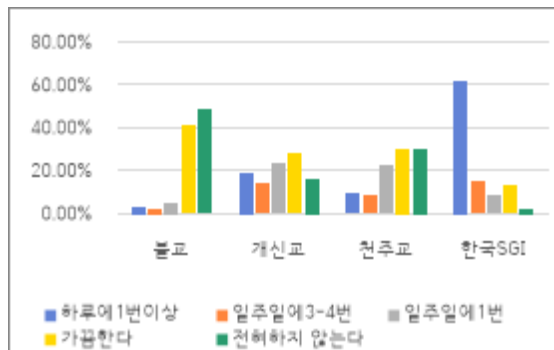
〈표 12〉 개인적 기도·기원 횟수

단위(%)

	하루에 몇 번	하루에 1번	일주일에 2-3번	일주일에 1번	한 달에 몇 번 또는 그 이하	전혀 하지 않는다.
불교	3	5	6	7	54	25
개신교	26	26	18	14	9	8
천주교	13	17	21	16	21	12
한국SGI	73.5	16.9	5.6	1.1	2	0.4

22) 최지원, 앞의 논문, 30면.

한국SGI 회원의 공식적인 기원은 주로 좌담회에서 이루어진다. 좌담회 순서는 《제목 3창 → 여는 글 → 학회 역사 → 어서(御書) 배독 → 체험담 발표 → 대화시간:행복대화 → 참석간부 → 제목 3창》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종교적 기원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 제목 3창, 마지막 제목 3창이다.²³⁾ 이 설문조사의 질문은 개인적 기도와 기원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한국SGI 회원들의 개인적 기도와 근원은 근행과 창제다. 근행은 아침, 저녁으로 본존을 향해 법화경의 방편품과 여래수량품을 읽고 ‘남묘호렐게교(南無妙法蓮華經)’라고 제목을 하는 행동이다.²⁴⁾ 창제는 공식 의례 및 근행, 개인 수행을 모두 아울러 중요히 사용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와 직결되는 핵심 기원이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닥친 불행, 타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여 일상에서 수행하면서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한다. 따라서 위 조사와 같이 하루에 몇 번이라는 빈도가 가장 크며, 회원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길게는 10시간, 짧게는 1시간 창제를 하고 있다고 한다. 창제 후 얻은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²⁵⁾



- 23) 3번 종을 올리면 동쪽을 향해 손을 합장하여 회원들과 소리를 맞춰 제목(남묘호렐게교)을 3번 부른다. 3번째 남묘호렐게교를 부를 때 ‘호’부터 고개를 숙이며 소리가 안으로 올리도록 한다. 이 내용과 함께 좌담회의 상세 내용은 다음의 논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최지원, 앞의 논문, 35면.
- 24) 한국SGI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sgi.or.kr/philosophy/activity/activity.ksgi> 2022년 10월 13일 열람.
- 25) 인터뷰를 실시하는 당일 대상 회원은 그날 인터뷰를 잘 할 수 있도록 제목을 정해놓고 기원을 하고 왔다. 대부분 인터뷰 대상자가 기원을 하고 왔으며, 한국SGI 회원은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창제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개인 종교 생활의 패턴이었다.

〈표 13〉 종교적 교리 접하는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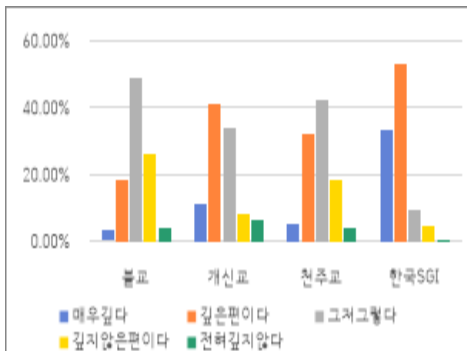
단위(%)

	하루에 1번 이상	일주일에 3~4번	일주일에 1번	가끔 생각날 때	전혀 하지 않는다
불교	3	2	5	41	48
개신교	19	14	23	28	16
천주교	9	8	22	30	30
한국SGI	61.9	14.9	7.9	13	2.2

또 다른 종교 행위는 종교적 교리를 얼마나 자주 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경전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라는 질문이다.

이 역시 앞의 질문과 연계되는 것으로 한국SGI 회원은 하루에 1번 이상이 61.9%로 기성종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회원들이 생각하는 교리활동이라 하면 교학활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정기 기관지 『법륜』에서 일련 성인의 어서 법문과 이케다 명예회장의 스피치 학습을 일컫기도 한다. 또한, 근행에서 이루어지는 아침, 저녁으로 어본존을 향해 법화경의 방편품과 수량품을 독송하는 조석 근행 역시 일반적으로 경전을 읽는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조석근행과 또한 잦은 교리학습으로 인해 회원들은 하루에 한번 이상 일주일에 3~4번 실시한다는 76.8%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한국SGI 회원들의 종교적 접근은 기성종교에 비해 아주 밀착되어 있다 할 수 있다.

다음의 질문은 ‘본인의 종교적 믿음이 얼마나 깊다고 혹은 깊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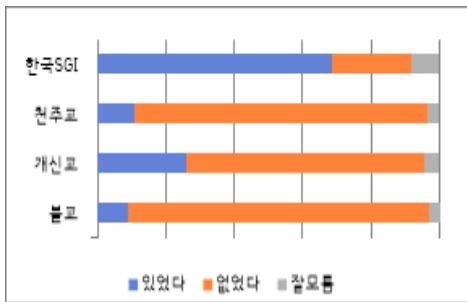
〈표 14〉 종교적 믿음 정도

단위(%)

	매우 깊다	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깊지 않은 편이다	전혀 깊지 않다
불교	3	18	49	26	4
개신교	11	41	34	8	6
천주교	5	32	42	18	4
한국SGI	33.4	52.7	9.4	4.4	0.2

자신의 종교와 매우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 질문에 관한 결과 역시, 한국SGI 회원의 신앙심은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매우 깊다가 33.4%, 깊은 편이다가 52.7%로 합계 86.1%로 회원들의 신앙심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가 그다음으로 높은데 깊다의 합이 56%이지만, 매우 깊다는 11%에 그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잦은 기원 활동, 교학 활동 등이 한국SGI 회원의 높은 신앙심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종교의 힘으로 병이 나은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SGI가 68.7%로 압도적으로 높다.



〈표 15〉 병 치유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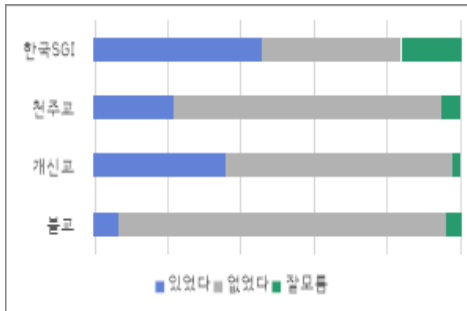
단위(%)

	있었다	없었다	잘 모름
한국SGI	68.7	23.4	7.9
천주교	11	86	3
개신교	26	70	4
불교	9	89	3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SGI 회원 대상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자 한다. 이 인터뷰 조사는 2018년 11월부터 하여 2019년 7월까지 진행하였다. 총 2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간부에서 일반 회원까지 다양하게 대상자를 구성하였다. 인터뷰 조사 결과 회원들의 입신 동기는 가족 불화, 병 치유,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질문과 관련하여 사례를 들자면, 인터뷰 대상자인 A씨는 평소 늘 아파서 누워계셨던 어머니가 어느 날 한국SGI 회원으로부터 남묘호령계교라고 제목을 외쳐보라 해서 그걸 외치니,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앉게 되고, 걷게 되고, 밥을 먹게 되고, 미음이 죽이 되고, 죽이 밥이 되어 먹는 그 어떤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 좌담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한다. 또 B씨는 어머니가 신장 기능이 악화되어 별다른 약은 없고 음식 조절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앞집 할머니가 남묘호령계교를 외쳐바라 해서 외쳤더니 건강이 호전되고, 자신도 종교활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약 20명 정도의 회원들의 인터뷰하는 동안 자주 듣는 입신 계기 내용이다. 이처럼 병치유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한국

SGI 종교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종교체험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도 한국SGI 회원이 가장 높은 46.1%를 차지한다. 그 뒤를 개신교가 따르고 있지만 약 10%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16〉 다시 태어난 경험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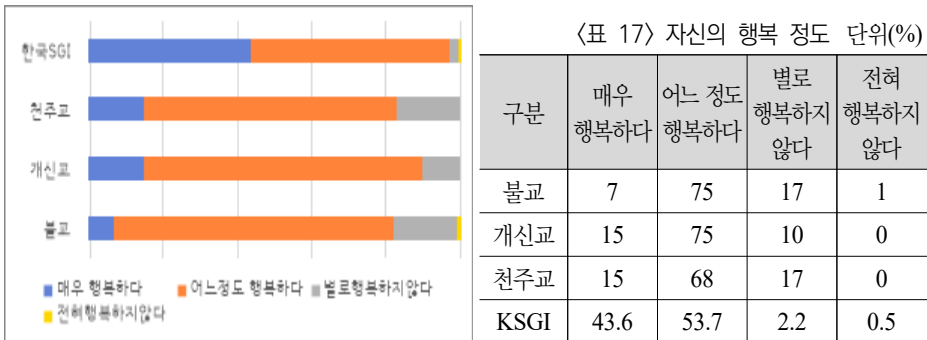
	있었다	없었다	잘 모름
불교	7	89	4
개신교	36	62	2
천주교	22	73	5
한국SGI	46.1	37.8	16

이와 관련해서도 회원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면, 일찍이 한국SGI에 몸담아 왔던 C씨는 남편이 갑자기 부도가 나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한다. 그때 스피치위원회에서 도다(戸田 城聖) 선생님 말씀인 “고난을 이겨내는 힘, 반드시 고난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고난을 위해서는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신에게 격려를 해주는 것 같아 눈물 흘리면서 다시 재기한 적이 있다고 한다. D씨는 딸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고 있었는데, 병원 치료, 굿 등 안 해본 치료가 없었다 한다. 그런데도 병에 호전이 없자 가족들이 믿고 있었던 한국SGI와 인연을 맺게 되는데, 그때 D씨의 마음을 울렸던 것은 이케다 선생님의 “100이 힘들면 200의 힘을 내고 1000이 힘들면 그 이상으로 힘을 내라고 한” 말씀이었다 한다. 그 뒤로 열심히 학회 활동을 하였고 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다. 앞서 언급한 병 치유와도 연결되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SGI 회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SGI 회원의 종교적 가치관에 대해 고찰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조사 결과에서 한국SGI는 기성종교와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SGI 회원의 생활 만족도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V. 한국SGI 회원의 생활 만족도 현황

이장에서는 한국갤럽의 기성종교와 비교하여 한국SGI 회원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결과를 비교 고찰한다. 먼저 회원들의 행복감에 관한 질문으로 ‘현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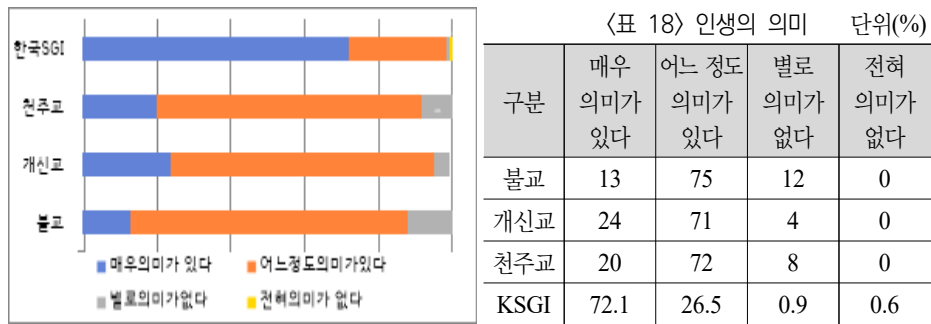


압도적으로 매우 행복하다(43.6%)에 한국SGI가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낸다. 여기에 어느 정도 행복하다는 53.7%로 전체 97.3%의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천주교, 개신교, 불교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는 결과가 10% 이상의 수치를 나타낸다. 이른바 한국SGI 회원들은 적어도 기성종교의 신자들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회원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한국SGI에서는 좌담회 의례 순서에서 구성원이 월별로 일상 보고를 하는 ‘행복 대화’라는 시간이 있다. 이때는 반담이 주축이 되어 좌담회에 참석한 회원들과 한 달간의 근황을 묻고 답하는 시간인데, 주제는 행사, 기념일과 관련된 주제거나 그때 시기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신심으로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내년에도 계속 도전할 일은 무엇인가요? 등 개인 목표를 설정하기도 한다.²⁶⁾ 또한, 한국SGI의 공식 회합에서 이루어지는 체험담 발표는 회원 중에서 종교체험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발표 및 공유하는 자리로 말하자면 성공담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행복이라는 성취감은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회원들도 함께 위로받고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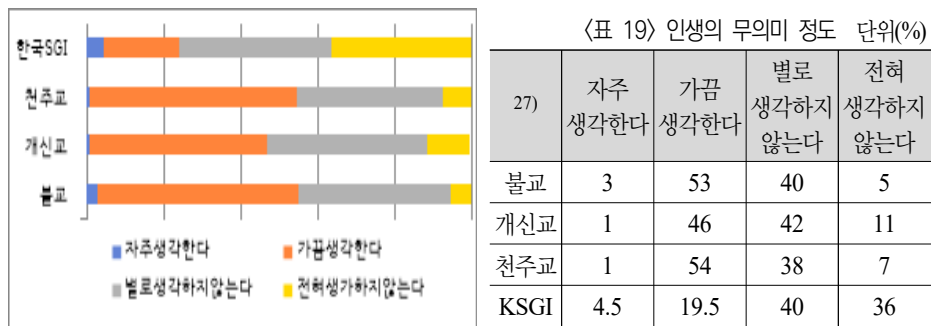
26) 최지원, 앞의 논문, 80~81면.

도 한다. 이처럼 한국SGI의 종교활동에는 ‘행복’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일상화되어 있는 키워드라 할 수 있다.

다음 질문은 인생의 의미와 관련된 질문으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관한 결과이다. 이 내용을 기성종교와 비교하면 다음의 결과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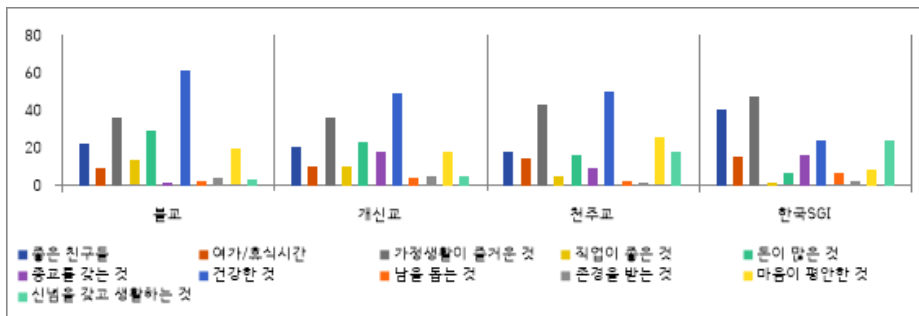


한국SGI 회원들은 매우 의미가 있다가 72.1%,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가 26.5%로 합계 98.6%로 대부분 인생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기성종교는 매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는 것에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한국SGI 회원의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행복’과 관련성이 있으며, 또한 행복한 인생의 기준이 되는 ‘인간혁명’이야말로 그들이 살아가는 한국SGI 불법의 생명관, 자신의 인생관과 삶의 방식이라 생각한다.



반대로 ‘인생이 의미가 없다고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40%).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36%)가 전체 76%를 차지한다. 이 역시 천주교, 개신교, 불교에 비하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SGI 회원은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인터뷰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가족 건강, 사업, 자식 문제 등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면서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응하였다.

다음은 귀하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2개 복수 응답을 요청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²⁸⁾



〈표 20〉 자신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단위(%)

	참여 인원 (명)	좋은 친구들	여가/ 휴식시간	가정 생활이 즐거운 것	직업이 좋은 것	돈이 많은 것	종교를 갖는 것	건강한 것	남을 돕는 것	존경을 받는 것	마음이 평안한 것	신념을 갖고 생활하는 것
불교	334	22	9	36	13	29	1	61	2	4	19	3
개신교	318	20	10	36	10	23	18	49	4	5	18	5
천주교	98	18	14	43	5	16	9	50	2	1	25	18
한국SGI	1055	40	15	47	1	6	16	24	6	2	8	24

27) 「한국SGI 목적 및 원칙」 제10항에는 ‘SGI는 진리의 탐구와 학문의 발전을 위해 또 모든 사람들이 인격을 도야하여 풍부하고 행복한 인생을 향수하기 위한 교육의 흥륭에 공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8)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앞의 책, 157~158면을 참고하여 한국SGI설문조사 결과를 대입했다.

먼저, 한국SGI를 보면 가정생활이 즐거운 것> 좋은 친구> 건강한 것, 신념을 가지는 것> 종교를 갖는 것> 여가/휴식 시간 등의 순이다. 개신교는 건강한 것> 가정생활이 즐거운 것> 돈이 많은 것> 좋은 친구들 등의 순이다. 천주교는 건강한 것> 가정생활이 즐거운 것> 마음이 평안한 것 등의 순이다. 불교의 경우는 건강한 것> 가정생활이 즐거운 것> 돈이 많은 것 등의 순이다. 한국SGI는 가정생활이 즐거운 것 등을 가장 높은 이유로 들었고, 직업이 좋은 것, 돈이 많은 것, 남을 돕는 것, 존경을 받는 것 등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른바 가정생활, 가족과의 화합을 삶에 있어 가장 중요 요소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SGI 설문 응답에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고, 그것도 기혼이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한국SGI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한국SGI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은 부인부의 활동이라 한다. 부인부는 결혼을 하면 기존의 청년부에서 옮기게 되는데, 한국SGI 부인부의 역할은 회원 증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²⁹⁾ 특히 이 부인부가 새로운 신자를 받아들이는 가정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가정의 화목, 화합이다.

다음은 가정 내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일은 구별되어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한다’,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 라는 항목에 대한 결과이다. ³⁰⁾

〈표 21〉 가정 내 환경과 관련된 질문

단위(%)

	남편과 아내의 역할 구분					자식은 부모의 뜻을 순종					경우에 따라 이혼 가능		
	참여 인원 (명)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참여 인원 (명)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참여 인원 (명)	있다	없다
불교	334	53	45	3	불교	334	39	59	2	불교	334	73	27
개신교	318	39	59	3	개신교	318	36	62	3	개신교	318	68	32
천주교	98	36	63	1	천주교	98	31	67	2	천주교	98	73	27
한국SGI	1055	19	77	4	한국SGI	1050	5.8	89.5	4.7	한국SGI	1044	40	60

29) 이른바 한국SGI에서는 새로운 회원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절복’이라고 하는데, 최종 절복 단계에서 부인부의 역할이 크다.

30) 기성종교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앞의 책, 159면을 참고하였다.

첫 번째 질문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 구분 찬성에 대해 한국SGI는 기성종교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인 19%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77%이다. 또한 ‘자식은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그렇다가 5.8%로 가장 낮은 수치고, 아니다가 89.5%로 반드시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는 질문에서 한국SGI는 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60%로 높다. 그 외 불교, 개신교, 천주교는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SGI 회원들은 기성종교에 비해 유교적 가치관에 얽매어는 보수적인 가치관이 아닌 개방적 가치관을 지녔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이혼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부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자신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곧 부부관계도 가정도 화목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설문 결과에서 보면 이혼보다는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한국SGI 회원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은 아래의 항목에 대해 만족도를 알아보는 조사이다. 매우 만족하면 10점, 매우 불만족하하면 0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이를 100점 환산 평균을 나타낸 표이다.³¹⁾

〈표 22〉 개인적 만족도 체크

(단위: 점, 0-10점 척도 100점 환산평균)

	불교	개신교	천주교	한국SGI
① 살림살이 형편	62	61	60	63
②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70	69	69	70
③ 결혼생활/이성관계	65	66	63	69
④ 요즘 건강상태	63	68	66	66
⑤ 직업/하는 일	63	65	62	69
⑥ 전반적인 개인생활	64	67	64	70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알아보는 조사로 기성종교, 한국SGI가 대체적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SGI가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다. 한국SGI는 전반적인 개인 생활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70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31) 기성종교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앞의 책, 81면을 참고하였다.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직업/하는 일, 결혼생활/이성관계의 만족도도 69점으로 다음으로 높다. 불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70점으로 가장 높고, 다른 항목에 있어서는 65점 이하의 점수를 나타낸다. 개신교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점수가 69점, 요즘 건강 상태가 68점, 전반적인 개인생활 67점을 나타낸다. 천주교 역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69점, 요즘 건강상태가 66점이고 그 이하는 65점 이하이다. 한국SGI 회원이 전반적인 개인 생활에서 기성종교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삶은 종교적 신앙심에서도 일상생활면에서도 한국SGI와 어떠한 형태로든 연계되어 있고, 밀착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SGI 회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SGI 회원의 종교적 가치관과 생활 만족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계 종교인 한국SGI의 종교적 특징과 한국 사회 속에서의 한국SGI 종교의 성장 요인에 접근하고자 했다. 이 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SGI 회원의 종교를 갖는 시기는 기성종교와 비교했을 때 9세 이하와 20대~30대가 가장 많았다. 또한 한국SGI의 회원들은 기성종교 대비 신앙을 하는 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믿게 된 계기는 스스로 필요해서, 다른 사람의 전도가 많았고, 종교를 믿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라는 특징을 보였다. 종교집회 참가 횟수, 개인적인 기도 또는 기원 횟수, 교리를 접하는 횟수도 기성종교에 비해 훨씬 많았다. 또한, 종교적 신앙심 정도나 종교의 힘으로 병을 치유한 경험 역시 기성종교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생활 만족도 면에 있어서는 행복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인생의 의미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삶의 중요한 척도에서는 기성종교가 건강한 것을 꼽을 때 한국SGI는 가정생활이 즐거운 것을 꼽았다. 또한, 조사 결과 한국SGI 회원들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성종교와 비교해 개방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혼은 반대의 뜻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 관계를 둘러싼 회원들의 사상적 측면에 대해서는 한국SGI의 교리와 회원 활동의 세부 내용을 근거로 좀 더 밀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한국SGI 회원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와는 다른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SGI라는 종교와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²⁾ 무엇보다 죄담회, 체험담, 창제 등을 통한 회원 스스로 삶에 대한 중요성을 생활 속에서 인지하고 평화로운 삶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행위가 일상생활과 접목되어 회원들의 종교적 가치관과 생활 만족도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 즉, 종교와 삶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일체화시켜 회원들은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와 개인 삶을 구분 짓기 어려운 회원의 삶은 그만큼 한국SGI라는 종교가 조직적으로 그들의 삶에 치밀하게 침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본부(일본 창가학회, 한국SGI)와 회원들과의 구조적 조직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는데, 이글에서 살펴본 회원들의 설문 결과와도 연결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SGI가 한국 사회에서 그 성장세를 꾸준히 유지하는 데 있어 회원들의 종교적 가치관과 인생관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투고일: 2022.10.16

심사일: 2022.11.21

게재확정일: 2022.12.12

32) 이러한 결과 내용은 어디까지나 한국 갤럽 조사 결과와 필자가 참여한 공동연구 조사를 대조한 결과에 불과하다. 정확한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동일한 조사 방법, 조사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 결과를 낼 필요가 있다. 또한 이글에서 고찰한 한국SGI 회원 대상의 종교적 가치관과 생활 만족도는 단순히 설문조사 내용으로 도출한 데이터 결과로, 한국SGI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삼기에는 다양한 자료 분석과 데이터 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이원범 편저, 『한국내 일본계 종교운동의 이해』, 제이앤씨, 2007
- 이원범 · 남춘모, 『한국속 일본계 종교의 현황』, 대왕사, 2008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2015
- 김용환, 「한국SGI의 공공윤리 교육연구」, 『종교교육학연구』 53, 한국종교교육학회, 2017
- _____, 「한국SGI의 공공행복 연구」, 『종교연구』 77, 한국종교학회, 2017
- _____, 「한국SGI 육근청정 법화삼매 연구」,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6,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 2020
- _____, 「한국SGI 지용보살의 공공행복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91,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22
- 김현석, 「한국SGI 종교조직과 활동에 관한사회학적 연구 - 조직화 과정과 문화회관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서대 박사학위논문, 2022
- 이원범 · 남춘모, 「조직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일본계 신종교 교단의 소집단 활동-소집단활동으로서 KSGI좌담회 분석」, 『일본근대학연구』 16, 한국일본근대학회, 2007
- 최지원, 「신종교의 언어적 실천과 종교성-한국SGI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20

한국SGI공식홈페이지 <https://www.ksgi.or.kr>

Study of Religious Values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Korea SGI Members

Je, Jum-suk

This study investigated the Korea SGI members' religious values and life satisfact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ult of a survey of Korea Soka Gakkai International (Korea SGI) members based on data on Protestantism, Catholicism, and Buddhism surveyed by Gallup Korea. Through this, this study would approach the religious characteristics of Korea SGI, a Japanese religion and the growth factors of the Korea SGI religion in Korean society. As a result of this survey, compared to the established religions, most of the Korea SGI members came to have the religion when they were younger than nine and in their 20s to 30s. In addition, the Korea SGI members had faith longer than those of the established religions did. As for the momentum they came to believe in the religion was mostly because they needed to or by another person's propagation. As for the reason for believing in the religion, they wanted to be blessed or they would like to find the meaning of life.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religious gatherings, the number of personal prayers or wish, and the number of encounters with the doctrine were much more than in the established religions. Also, they had higher religious beliefs or more experiences of healing by the religious power than in the established religions. In terms of life satisfaction, they felt great happiness and attached importance to the meaning of life as well. As for the important measure of life, the members of the established religions picked health while those of Korea SGI picked happy family life. In addition, it turned out that the Korea SGI members had open values, instead of conservative ones tied up to Confucian values compared to the established religions. Through the above results, the Korea SGI members had religious values different from Protestantism, Catholicism, and Buddhism while they kept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religion of Korea SGI. It is judged that the members' religious values and life satisfaction are also considered one of the growth factors of Korea SGI in Korean society.

Key Words : Korea Soka Gakkai International (KSIGI), Soka Gakkai, Religious values, Life satisfaction, Established religions, Gallup Korea, Japanese new religion